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사물의 의미가 그릇된 것은, 말해보자 사실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해내는 주체의 분열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사물은 놓여있을 진데, 늘 해매는 것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언제나 자기를 하나의 온전한 체계로 구축하는 일의 어려움에 있다.

그러나 전시는 선언의 형식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작가는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선포된 진실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다 그는, 그 이면에 놓인 미로아로서의 주체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내딛는 걸음들의 일련을 재현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Yours Faithfully》는 선언되지 않고 그 자체로 드러날 주체의 무한을 손실 없이 마련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주제와 소재 모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무한함으로서의 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Yours Faithfully》의 인용된 히브리 5:7에서 육체의 예수가 간구하여 얻는 응답은 신적 무한함으로의 초대이다. 이를 통해 무한을 내부로 들여오는 예수¹는 다시 무한으로 넘어간다. 마찬가지로 감히 무한에 이르지 못하고² 방황하는 주체는, 교량이 되는 예수와의 동일시를 통해 분열된 전체를 아우르는 무한으로 가 닿는 노정을 기획한다.

한편 《Moodboard》가 내세우는 집·고향·실내는 거기에서부터 개인이 시작되는 출발점으로, 모든 사상의 근간을 이루며 주관적 사고체계라는 다른 축을 상정해낸다. 작품의 요소로 삼기에 일견 사소해보이는 소유물들이 전시관의 면면에 선별·전시되는 수작업을 통해 의미가 부여되고, 한정하는 기능의 집의 저변은 역설적이게도 더욱이 집 바깥으로 넓혀진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우르는 무한으로서 형이상학적 신·神 개념은 경계를 넓혀가며 확장되는 집의 체계와 만나 그 안으로 포섭되고 ‘성가정 Holy Family’ 안으로 귀가하여 ‘아버지 신’으로서가 된다. 손에 잡히거나 보일 수도 있는 형이상학으로서 그 같은 무한은 안식이면서, 동시에 남성과 아버지로 축소된 질식이다. 그렇게 성경 안의 무수한 남성인칭대명사는 여성기를 추방한다.³

이때 재차 매개로서 잇걸it girl인 예수 개념⁴이 도입된다. 우상이자 자기만의 매력⁵을 갖춘 아이콘icon이라는 몇몇 신적인 특성을 공유하는 잇걸은 유비쿼터스Ubiquitous⁶라는 철 지난 신조어가 암시하는 것처럼, 어디에나 현재로 편재ubiquity한다는 점에서 무한자의 ‘인터넷 안에 임하는’ 기발한 대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실로 그 무한이란 해저 광케이블 통신망과 디스플레이를 거쳐 ‘창Window’을 통해서만 구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를 갖는다. 전원이 공급되지 않은 ‘창’ 주변부의 선명한 암흑과⁷, 주사율과 픽셀로 조각난⁸ 무한 속에 주체는 오래 머무를 수가 없다.

아마도 당신이 보고 있는 전시가 발견된 것은, 인터넷의 ‘창’을 통해서이던지, 그게 아니라면 지금 서 있는 장소 뒤로 위치한 구기천변 도로 ‘창’너머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거나 실제의 전시는 창 너머에 있고, 당신은 문을 열고 들어와야 한다. 이렇듯 보고 생각함의 다음에 이르는 것은 행동이다. 그러므로 노정의 다음으로 형이상학적 사변과 시시각적 수용을 거쳐 행동하는 주체의 면모가 부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행동으로서 《every walk is a marathon》의 중심이 되는 것은 단연 산책walk을 통해 수집된 사물이며, 한편으로 외곽엔 인터넷을 상징하는 파란색 사이드바와 신을 거론하는 인용구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디에 주안을 두느냐에

¹“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요한 14:11

²“i could never dare aspire to be like God”. <Yours Faithfully,> 2022.

³<none of my girlfriends want to menstruate anymore> 2020.

⁴“Jesus, the ultimate ‘it girl.’”. <Yours Faithfully,> 2022.

⁵“나는 곧 나다” 출애굽 3:14

⁶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이동 중에도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내는 개념(T. Iso. 2003). 지금은 대부분 사물인터넷(IoT)이라는 또다른 신조어로 대체되었다.

⁷<just like a girl> 2022.

⁸<i’ve been living vicariously through these split images that i secretly despise and in return i’ve become so utterly mean and hateful> 2022.

따라 수집된 사물들은 인터넷 서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것일 수도, 현실세계의 산책과 그를 통해 만나는 사물이 맺는 의미연관 자체가 될 수도 있다. 혹은 두 가지가 중첩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거니와, 분명한 것은 수집되고 나열된 사물은 더는 <Moodboard>에서와는 다르게 집이라는 하나의 체계에서 직조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여기는 더는 집이 아니다. '상냥하고 다정하게' 사랑을 베풀고자 유괴⁹된 아이의 심정에서, 한밤중 일어나 보게 되는 낯선 벽의 모습으로 <every walk is a marathon>이 읽혀진다. 일그러진 그 사랑의 표현형에는 목적end 없이 주체 내부로 흐르는 수단means만이 생생하다. 어떤 목적에도 이르지 못하는 수단적 산책. 'marathon'이라는 제목이 함축하는 바는 바로 그것이다.

수단만이 가득 찬 낯선 집에서 나르시스적 주체는 이처럼 자기만을 고려할 따름이지만, 거기에선 그 자신조차 머무르지 못하고 빈 집으로 남겨된다. 빈 집의 외관exterior은 개념화된 원경으로 나타나면서, 망실된 주관성이 채색된 짜집기만으로 흔적처럼 겨우 남아있을 뿐이다.¹⁰ 여기에서 주체는 타인의 기호목록에 등재됨으로 견고한 형상을 얻기를 기도企圖해 보지만, 자신의 결핍을 타인에 기대어 충족하겠다는 동기에서 비롯 된 입체는, 물론 확실하지만 그로 인해 동시에 무엇보다 뒤틀리고 쥐어짜여 타성에 찬 입상立像¹¹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자기탐닉적 회로를 맴도는 사이 어느새 반점처럼 일어난 쓰레기의 조각은 두드러기와 같이 그의 표면을 뒤덮는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온 것은 분열상을 해소하고자 주체가 나아가는 노정으로, 통시적으로 보자면 신 - 인터넷 - (수단적) 타자의 순서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번번이 어긋나는 그 미로를 따라 걷는 사이, 관객은 자신의 안에도 언제부터 비슷한 난관이 들어차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실은 우리 모두가 같은 처지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전시 <Yours Faithfully>가 각자가 공통적으로 처한 그러한 실존을 상기하게 하는 것은, 동시에 우리가 적어도 한 번은 같은 체험을 겪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 체험이란 다름 아닌 무한에 관한 체험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부를 수 있을지에는 누구 하나 정확하지 못하고 오직 가타부타 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가 보아온 주체의 헤맴은 분명하게 잡히지 않는 그 같은 경험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유일하게 자명한 것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그때의 기분은 무엇도 배제하고 성립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내 안에 전부가 있다' 정도로 개략적으로 나타내지는 그 기억을 돌아보면, 세계를 안으로 받고 자타의 구별마저 무화되는 순간에는 결단코 무엇도 단독으로 이해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나는 비로소 바로 거기에 모두를 온전히 그러모을 단서가 있게됨을 경험적 진리로서 믿게 되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이 글에서 편지에 특히 주목하는 까닭은 비단 그것이 다른 작품 전체를 통괄하는 헌법전의 위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거기에는 작가가 거듭하여 내어놓는 요청이 있다. 그것은 전시의 제목이면서, 다시 작품의 제목이고, 편지의 끝을 채우는 동안 우리에게 되풀이하여 건네어진다. 자신이 무어라 말하기 이전에 주고받아야 했던 말들. 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답변이 역시 주체의 무한을 축소하는 한계를 갖는다는 것은 물론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성실히faithfully 응답해야 하는 까닭은, 요청이 겨냥하는 그것 말고는 우리의 본성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달리 무엇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분명하게 사실이다. 각자의 안에 모두 존재한다는 무한을 똑바로 응시하는 일. 선언되지 않은 주체의 무한성은 그렇게 달리 교회당도, 인터넷도, 자기으로 돌아오는 산책로도 아니고 바로 걸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있을 것이다.

이제 답장을 적어낼 차례이다. 작가의 집요한 불만족에 제대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구로 시작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내 생각에 너는...'

그리고 부디 이것이 좋은 답장이 되었기를 바란다.

⁹"i want to kidnap a kid to love them so dearly and tenderly like God loves me" <every walk is a marathon> 2022.

¹⁰<The House>. 2020

¹¹<my world, defined by the extent to which i understand His> 2022.